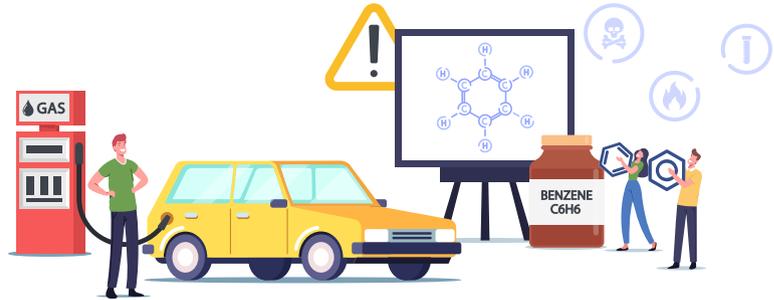


# 유익함과 위험의 경계 벤젠의 두 얼굴

글 편집실



최근 우리나라의 한 대규모 산업단지 인근 주택가에서 벤젠이 검출되면서 그 유해성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벤젠은 색깔 없는 투명한 액체로 향긋한 냄새를 지닌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주로 플라스틱, 합성고무, 세제, 페인트,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주로 석유에서 생산되지만, 석탄, 천연가스, 물질 연소 과정에서도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벤젠은 주로 석유화학단지에서 많이 배출되며 자동차 배출가스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입할 때, 그리고 담배 연기에서도 미량 발생한다. 벤젠은 휘발성이 높아 공기 중에 빠르게 분산되어, 호흡기를 통해 쉽게 인체에 노출된다. 피부를 통해서도 아주 적은 양이 침투되기도 한다.

## 건강에 치명적인 발암물질 벤젠

문제는 벤젠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위험한 물질이라는 점이다. 이는 암 발생과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는 물질로, 재생불량성 빈혈, 급성 백혈병, 골수 손상 등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벤젠에 갑작스럽게 높은 농도로 노출되면 마취 증상, 호흡 곤란, 졸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낮은 농도라도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혈액 질환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는 벤젠을 유독물로 지정하고 수입신고, 영업 등록, 취급 시설 검사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벤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200개 이상의 화학 공장에서 암 관련 독성을 줄이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또한 산업 현장에서 유해 물질의 유해성을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측정망 확충 및 철저한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보호가 절실하다. 🐾